

보도 시점 2026. 3. 12.(목) 15:30
(2026. 3. 13.(금) 조간) 배포 2026. 3. 12.(목) 09:00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3.12)
- 인증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건의 사항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정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 정보위’)는 3월 12일(목) 개인 정보위 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함께한 가운데,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및 금융 보안 원장, 심사기관**, 인증심사원 등이 참여한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인증기관 :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인증서 발급, 인증 품질관리, 인증위원회 운영 등 수행

** 심사기관 :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신청 기업·기관에 대한 심사 업무 수행

< 간담회 개요 >

- ▶ 일시/장소 : ‘26.3.12.(목) 14:00~15:30 / HJ 비즈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 ▶ 참석자 : 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심사기관(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 통신진흥협회, 개인정보보호 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인증심사원, 인증기관 추천 전문가 등 20명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 소관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와 개인 정보위 소관의 개인 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결합한 통합 인증제도로, 과기정통부와 개인 정보위는 지난해 12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 정보 및 정보 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

기업 및 기관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통하여 보유한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개인 정보 처리 흐름을 체계화하며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을 받은 통신사, 대형 이음터(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보안 및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 정보위는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소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및 인증 기준 강화, ▲예비 심사 신설과 기술 심사·현장실증형 심사 적용 등 심사 방식 개편,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감독 강화 및 심사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심사 품질 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실효성 강화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발전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기술 심사 강화 등의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세부 고려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심사 안내 방침(가이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심사 품질 강화를 위해 심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모니터링)과 심사원의 심사 참여 요건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과기정통부와 개인 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 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는 기업이 운영 중인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전 예방 정책 중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고도화되면서 침해사고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각심과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 침해 대응과	책임자	과장	백대현	044-202-6460
		담당자	사무관	이영준	044-202-6463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 보호정책과	책임자	과장	황지은	02-2100-3081
		담당자	사무관	배혜진 공윤정	02-2100-3086 02-2100-3084
		담당자	주무관	최화평	02-2100-3048
담당 부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인증 단	책임자	단장	김선미	061-820-3800
		담당자	팀장	장승재	061-820-3810
담당 부서	금융보안원 ISMS-P인증센터	책임자	센터장	오중효	02-3495-9004
		담당자	팀장	김정덕	02-3495-9570

